

#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막 전부터 대박 조짐

### 9만1800㎡ 코스모스·백일홍 등 만발...추석 연휴 15만명 방문 7~15일 축제...야영+소풍 '캠프닉'·달빛파티·화려한 야경 손짓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개막 전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성군은 추석 연휴 동안 14만 2000여명이 황룡강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도 1만 1000여명을 넘어서, 두 곳을 합산하면 15만명이 넘는다.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황룡강변 3.2km 구간에 피어난 가을꽃과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성 최대규모 행사다.

'장성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마련된 올해 축제에선 황룡강 가을꽃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방문객들에게 전한다. 군은 장성호 일원부터 황룡강까지 9만 1800㎡ 부지에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등 알록달록한 가을꽃을 고루 심었다.

힐링허브정원과 축제 주무대인 옛 공설운동장 인근에는 테마정원이 꾸며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

히, 힐링허브정원 해바라기는 축제 준비를 위해 팔 걷고 나선 장성군민들이 함께 심은 꽃이어서 뜻깊다.

야영과 소풍의 합성어인 캠프닉을 즐길 수 있는 '꽃나들이 캠프닉',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꽃 향기 소리 놀이터',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펫 놀이터' 등 누구나 강변에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공연도 이목을 끈다. 7일 저녁 열리는 '개막 축하 쇼 가요 베스트'에는 설운도, 조항조, 신유, 양지은 등이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이석훈, 박해원, 선우 등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콘서트를 연다. 평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달빛파티'가 축제의 흥을 돋운다.

한층 아름다워진 야경도 큰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가을꽃축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플라워터널, 문화대교, 용작교 인근 경관조명에 이어 올해는 황



추석 연휴 기간 15만명이 넘는 인파가 황룡강과 장성호를 찾았다. 황룡강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장성군 제공>

룡 형상 용작교에 직접 조명을 설치해 화려함과 신비로움을 극대화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 15만 방문 기록은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대한 세간의 많은 관심

을 반영한다"면서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축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118년 역사 화순탄광

### 13일 화순군민의 날 행사 때 군, 근로자 등 200여명 초청

118년 만에 폐광한 화순탄광의 의미를 되살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화순군은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행사를 오는 13일 오후 6시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폐광한 화순탄광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합과 힐링의 잔치로 개최한다는 게 화순군의 계획이다.

118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문을 닫은 화순탄광의 뜻을 살리기 위해 탄광 근로자와 가족 등 200여명을 특별 초청한다.

행사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군민화합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기념식 직후 대형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축하 가수로는 정동원과 구창모, 김성환, 박주희 등이 출연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들과 화순탄광 근로자들을 위해 힐링의 시간을 마련한다"며 "화순을 새삼스럽게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군정 슬로건에 맞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나주시 "청년들 '0원 주택' 부담없이 입주하세요"

### 산단 근로자·신혼부부 등 25일까지 모집...송월동·삼영동 부영아파트 보증금 전액 지원

나주시가 아파트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면 살 수 있는 이른바 '0원 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입주할 즉시 나주로 전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또 나주시의 사업체 일하거나 근로할 예정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을 증명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청년 공약 사업의 하나로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도 노렸다.

나주시는 원도심 임대아파트인 송월동·삼영동 부영아파트 보증금 전액(가구당 최대 4900만원)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송월동·삼영동 부영아파트 15호씩 모두 30호를 공급한다.

나주시는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모두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이곳에서 2년 살 수 있고,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나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갖춰 나주시 기획예산실을 방문해 내면 된다.



나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전·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30호를 올해 공급한다.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이달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른 지역 청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나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산단,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취업 청년 주거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청년세대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했다.

여기에 귀농인에게 7500만원 한도(연 1.5%) 용자 지원 방식의 농촌 주택구매 자금과 1000만원(자부담 30%) 한도 농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고쳐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농촌활력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총 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2050 탄소중립' 계획 중간 보고회

장흥군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중간보고회에는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와 군의원, 외부 전문가, 환경단체, 농업대표, 실과소장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연구용역을 벌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주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흥군은 분야별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역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와 전남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흥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강진군 을 지역화폐 300억 판매 '75% 달성'

강진군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해 말 기준 300억원으로, 목표 발행액(400억원)의 7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육아 양육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은 약 100억원가량이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부터 10% 할인인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상품권 사용 가맹점은 지난해 1월 1152개소, 올해 1월 1258개소, 9월 말 1380개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진군 측은 "올해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주일에 10~15건 정도 가맹점 등록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연 매출 30억원 넘는 점포는 모두 58곳이다.

강진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인 '착(Chak) 상품권' 도입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지류·카드·모바일을 합쳐 매달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달 4일부터는 '착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자동 처리된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결제 내역은 가맹점을 직접 찾아야 처리할 수 있다.

착(모바일)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강진군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3)에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